

투어 번호
LK5JTMZ52Z

스리랑카 사랑 (25일)

25일 · 24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25일간의 프라이빗 운전기사 동반 투어는 스리랑카 전역을 커버하며, 남부 해안 해변과 차 재배지역 언덕부터 북부의 고대 도시와 문화삼각지대까지 이어집니다. 콜롬보 공항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힉까두와, 갈레, 미리싸를 거쳐 야라 사파리를 즐기고, 엘라와 누와라엘리야의 산악 지역으로 올라간 후 캔디를 거쳐 덤불라, 시기리야, 폴론나루와의 문화삼각지대 유적지들을 지나 북쪽의 트린코말리와 자프나에 도달한 후, 아누라다푸라를 거쳐 콜롬보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네고보에서 출발합니다.

여행 중에 갈레의 네덜란드 요새, 야라에서의 고래 관찰 및 야생동물 사파리, 엘라의 나인 아치 브릿지와 리틀 애덤스 피크, 누와라엘리야 주변의 차 농장과 폭포, 캔디의 성령사원과 식물원, 시기리야의 암석 요새, 덤불라의 동굴 사원, 폴론나루와와 아누라다푸라의 폐허 도시, 트린코말리의 해변과 피전 아일랜드, 자프나의 힌두 사원과 역사 유적지를 둘러봅니다. 일정은 가이드 투어와 자유로운 해변 휴식일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겸 가이드가 전 일정을 운전하며 각 방문지에 동반하여 긴 다지역 여행의 물류를 담당하는 동안 여행객들은 자신의 숙박시설을 직접 선택하고 예약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히카두와

콜롬보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전담 기사 겸 가이드가 여행객을 맞이한 후 히카두와로 이동합니다.

콜롬보 국제공항 도착

입국 수속을 마치면 지정된 기사 겸 가이드가 마중을 나와 히카두와까지 모셔다 드리며, 도착 후 숙소에 체크인합니다.

Day 2 히카두와 → 갈레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유산이 깃든 갈레를 탐방하고, 화이트 티를 전문으로 하는 차 공장을 방문하는 하루입니다.



갈레 요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에 의해 세워진 아시아 최고의 보존 상태를 자랑하는 요새로, 박물관과 등대, 옛 네덜란드식 이름이 남아 있는 자갈길이 특징입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한두누고다 차 공장

버진 화이트 티 공장으로 알려진 이곳에서는 희귀한 화이트 티를 손으로 따고 가공하는 과정을 배우고, 이후 차와 초콜릿 케이크로 시음을 즐깁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3 갈레

현지 전설과 얽힌 언덕 위 사원과 해안의 전통 막대 낚시를 둘러보는 갈레 주변 하루 일정입니다.

루마살라 언덕

우나와투나 해변 동쪽에 위치한 언덕으로, 정상에는 불교 사리탑이 있으며 현지 전설에 따르면 하누만이 히말라야 산에서 옮겨온 조각이라고 전해집니다.

코갈라 스틸트 피셔맨

코갈라 해안을 따라 막대 위에 걸터앉은 어부들이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어업 방식을 선보이며, 석양을 배경으로 낚시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선사합니다.

Day 4 갈레 → 미리사

웰리가마 만 동쪽 끝에 자리한 초승달 모양의 해변으로, 이후 이틀간 휴식을 위해 머무릅니다.



미리사 해변

웰리가마 만 끝자락에 자리한 곡선형 모래 해변으로, 마치 외딴 섬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Ji-Elle · CC BY-SA 3.0

Day 5 미리사

미리사에서 고래를 찾아 바다로 나가는 반나절 일정입니다.



고래 관찰

5시간 동안 진행되는 투어로, 스리랑카 남부 해안에서 대왕고래, 향유고래, 긴수염고래를 만날 기회가 있으며, 전문 자연 해설사가 동행해 종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Ji-Elle · CC BY-SA 3.0

Day 6 미리사 → 우상고다 → 얄라

얄라로 향하는 길에는 그 자체로 전설을 품은 황량한 해안 지대인 우상고다를 지납니다.



우상고다

나무가 거의 없는 해안 지역으로, 이곳의 뱀 모양 암석에는 유독성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으며, 라마야나에 따르면 하누만의 불타는 꼬리에 의해 그을린 곳 중 하나로 전해집니다.

A.Savin · FAL

Day 7 얄라

섬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 중 한 곳에서 보내는 온전한 사파리 하루입니다.



얄라 국립공원

섬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으로, 스리랑카표범, 야생 물소, 나무늘보곰, 대규모 코끼리 무리를 비롯해 다양한 조류와 파충류 및 기타 야생동물의 서식지입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Day 8 얄라 → 엘라

고대 석굴 사원과 엘라의 대표적인 전망대 및 명소를 걷는 일정이 결합된 하루입니다.



부두루왈라가

10세기에 조성된 7개의 대승불교 조각상이 있는 고대 불교 사원으로, 원래의 치장벽토 가사 흔적이 아직 남아 있는 커다란 불상이 특징입니다.

Vishvax (talk) (Uploads) · CC BY-SA 3.0

엘라 관광

차밭과 바위 지대를 지나 리틀 아담스 피크까지 걷고, 나인 아치 브리지를 건너 루프형 선로가 있는 데모다라 기차역까지 이어집니다.

Day 9 엘라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중 한 곳으로 향하는 아침 하이킹입니다.

엘라 록

3시간에 걸쳐 오르는 하이킹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중 하나에서 나무누쿨라 산맥, 리틀 아담스 피크, 엘라 갭, 바둘라 철로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Day 10 엘라 → 누와라엘리야

식민지 시대의 거리와 공원이 남아 있는 옛 영국 고산 휴양지를 방문합니다.



누와라엘리야 시내

영국 식민지 시절 스리랑카 최고의 고산 휴양지로, 오두막과 별장, 저택,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 퀸 빅토리아 공원, 그레고리 호수가 있습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11 누와라엘리야 → 캔디

캔디로 향하는 길에는 차 재배 지역, 폭포, 식물원, 그리고 저녁의 전통 무용 공연이 포함됩니다.

차 농장 및 공장 방문

1824년 중국에서 처음 들여온 차나무와 1852년 제임스 테일러가 룰레콘데라에 조성한 상업 농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실론 티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살펴봅니다.



람보다 폭포

스리랑카에서 열한 번째로 높은 폭포로, 이동 중에 들릅니다.

A.Savin · FAL

맥우즈 차 농장

차의 품종, 가공 방식, 품질에 대해 설명하는 가이드 투어입니다.



학갈라 식물원

그늘진 가로수길과 색색의 미로 정원을 거닐 수 있습니다.

Own work of Buddhika Mawella · CC BY-SA 3.0



그레고리 호수

호숫가를 따라 산책합니다.

Rehman Abubakr · CC BY-SA 4.0



캔디 문화 공연

불 춤, 검 춤, 북소리에 맞춘 캔디안 댄서들의 공연 등 스리랑카 전통 예술을 한 시간 동안 선보입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12 캔디

캔디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성지와 식물원을 중심으로 한 하루입니다.



불치사(佛齒寺)

16세기에 지어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부처의 성스러운 치아 사리를 보존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채색된 홀과 조각된 기둥이 특징입니다.

A.Savin · FAL



페라데니야 왕립식물원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원으로, 4000종이 넘는 식물과 함께 난초, 향신료, 약용 식물, 현수교, 대포알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13 캔디 → 엘카두와 → 마탈레 → 담불라

담불라로 향하는 길에는 샘물로 이루어진 호수와 요리 시연이 포함된 향신료 정원을 지납니다.



셈부왓타 호수

자연 샘물로 형성된 호수로, 깊이가 30~40피트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옆에는 천연 수영장이 자리합니다.

Sivanandhan Dishanthan · CC BY-SA 4.0



향신료 및 허브 정원

고수, 고추, 계피, 카다멈, 육두구 등 다양한 향신료를 둘러보는 가이드 투어와 함께 로티와 커리 파우더를 만드는 전통 요리 시연이 진행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14 담불라 → 시기리야 → 담불라

시기리야 바위를 오르고, 마을 생활을 체험하며, 저녁에는 코끼리를 보는 사파리로 이루어진 하루입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5세기 카샤파 왕이 세운 바위 요새로, 이름의 유래가 된 사자 조각의 발 사이로 입구를 지나며, 채색 벽화와 계단식 정원, 저수조가 남아 있습니다.

Wrobell · CC BY-SA 3.0

시기리야 마을 체험

소달구지 타기, 잔잔한 호수에서의 카타마란 타기, 논길 산책, 그리고 연잎에 담아 내는 장작불 점심과 함께하는 전통 요리 시연이 포함됩니다.



민네리야 국립공원 사파리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사파리로, 건기에 대규모로 모여드는 코끼리 무리와 함께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15 담불라 → 폴론나루와 → 담불라

스리랑카의 중세 수도를 둘러본 후 담불라의 석굴 사원을 방문합니다.



폴론나루와 고대 도시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영했던 스리랑카의 두 번째 주요 수도로, 갈 비하라, 와타다게, 연못 목욕탕, 랑카틸라카 사원, 파라크라마바후 왕의 동상 등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담불라 황금 사원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석굴 사원으로, 부처의 생애를 그린 벽화와 다섯 개의 주요 동굴에 걸쳐 수백 개의 불상 및 신상이 있으며, 외부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16 담불라 → 트린코말리

북쪽으로 향하는 길에는 고대 석굴 사원과 트린코말리의 역사적인 요새가 있습니다.

고대 석굴 사원

이 사원의 역사를 전하는 벽화와 함께, 기원전 15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석굴 사원과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라바나 왕의 거대한 동상이 있습니다.

프레더릭 요새, 트린코말리

1624년 포르투갈인들이 처음 세우고 이후 네덜란드인들이 재건한 요새로, 파괴된 코네스와람 사원의 석재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Day 17 트린코말리

잘 알려진 해변과 산호초로 유명한 섬으로의 보트 투어를 결합한 하루입니다.



닐라벨리 해변

황금빛 모래와 맑은 물이 특징인 해변으로, 10세기 타밀 비문에 따르면 코네스와람 사원에 토지를 기증한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Anton 17 · CC BY-SA 4.0



피전 아일랜드 국립공원

산호초로 둘러싸인 두 개의 섬으로, 번식하는 바위비둘기와 다양한 산호 및 해양 생물의 서식지입니다.

AntanO · CC BY-SA 4.0

Day 18 트린코말리

트린코말리 해변에서 보내는 자유 일정입니다.

해변에서 보내는 하루

해변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하루입니다.

Day 19 트린코말리 → 자프나

힌두 사원과 역사 유적이 있는 자프나 반도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자프나 사원 및 명소

4천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날루르, 나이나티부, 마빗타푸람 힌두 사원을 비롯해 네덜란드 요새, 전쟁 기념비, 사라스와티 마할 도서관, 나가디파 비하라야, 그리고 자프나 최후의 왕 칸킬리 1세의 궁전을 둘러봅니다.

Day 20 자프나

자프나에서 이동하여 나야나티부 섬과 그곳의 사원들을 탐방하는 하루입니다.

나야나티부 섬

자프나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 나가디파라고 불리며 뱀을 숭배한 나가 민족과 연관이 있고, 나이나티부 나가푸샤니 암만 사원이 그 역사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나가디파 푸라나 비하라야

스리랑카의 가장 신성한 16개 불교 성지 중 하나로, 부처가 두 번째로 섬을 방문했을 때 머물렀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derivative work: Taprobanus (talk) NainathivuNahaVihara.JPG: Regunathan Umapathy · Public domain

Day 21 자프나 → 아누라다푸라

스리랑카 최초의 위대한 수도였던 곳의 유적을 걸어서 둘러봅니다.



아누라다푸라 고대 도시

기원후 10세기까지 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섬의 수도였던 곳으로, 한때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였던 제타와나라마야를 비롯해 사리탑, 승원 건물, 연못, 스리 마하 보디 나무, 아바야기리 승원 유적이 있습니다.

Thisaru Tharuka · CC BY-SA 4.0

Day 22 아누라다푸라 → 콜롬보

스리랑카 수도의 역사적인 명소와 도시 생활을 둘러보는 시티 투어입니다.



콜롬보 시티 투어

올드 라이트하우스, 옛 국회의사당, 갈레 페이스 호텔, 갈레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야 사원, 국립박물관을 방문하며, 인디펜던스 스퀘어와 레이스 코스 주변에서 쇼핑할 시간도 가집니다.

Gihanud2001 · CC0

Day 23 콜롬보

콜롬보에서 보내는 자유 일정입니다.

자유 일정

호텔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하루입니다.

Day 24 콜롬보 → 네곰보

다이빙과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서해안의 해변 일정입니다.



네곰보 해변

오랜 전통의 어업으로 유명한 모래 해변으로, 해안 바로 앞에 가라앉은 50년 된 난파선 근처에서 다이빙과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25 네곰보 → 공항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합니다.

출국

네곰보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며, 투어가 마무리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